

미륵불 현세 출현, 친견하러 오세요

現世 親見

며칠 전 새식구 권용식님의 주선으로 승리신문 기자들이 경기도 포천의 한 종교단체에 갔었다. 그곳은 미륵신앙을 하는 곳으로 '구천미륵회'라고 하였고, 강증산 선생 계통에서 분파되어 나온 종교였다. - 대순진리회나 증산도도 강증산 계열이지만 '구천미륵회'는 그와는 다른 단체였다. 그곳에는 중국에서 모셔왔다는 동양최대의 미륵불상(27미터, 우측 사진)이 뜰 안에 세워져 있었다. 법당도 미륵전(彌勒殿)이라고 3층으로 지었는데 중국식 건축물처럼 보였다. 미륵신앙이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선 중국 냄새가 났다.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든다

미륵은 불교인들이 미래에 중생들을 구원하러 온다고 믿는 부처다. 그래서 미륵불을 미래불이라고 하고, 중생을 구원한다고 구제불(救濟佛)이라고 부른다. 미륵신앙은 석가모니 사후 출현한 것으로 석가불이 현세불이므로 석가가 입멸한 후 장래에 다시 오실 부처님을 염원하기 시작한 데에서 미륵신앙이 나온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백제시대에 미륵불 신앙이 상당히 민중들에게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유명한 고승이었던 원효대사는 미륵상생경요(彌勒上生經宗要)라는 글을 썼고, 신라에서는 화랑제도와 결합되어 상당히 미륵신앙이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후 고려시대와 조선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륵신앙은 굳건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도 미륵불 주장단체 허다해

역사적으로 볼 때 미륵신앙은 왕실이나 귀족의 불교로서가 아니라 서민과 민중들과 함께하는 불교였다. 미륵불은 현실적으로 삶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나타나 부패와 부정을 타파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죄와 업에서 구원해 준다는 내용은 서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런 미륵사상을 공예나 신돈 같은 자들은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쓰는 부작용도 있었다. 지금 국내에 미륵불을 모시고 있는 종교단체가 매우 많다. 특히 강증산 선생을 미륵불로 모시는 종교가 많다. 또

한 불교인들도 미륵불의 출현을 기다리며 미륵을 찾는다. 문제는 저마다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미륵이 진짜 미륵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과연 미륵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미륵불에 대한 불경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륵불은 누구인가

미륵불은 석가불이 미래에 부처를 이룰 것이라는 수기를 주었다는 여러 불경을 근거로 한다. 그렇다면 미륵불에 대한 스토리를 불경코드로 살펴볼 것은 것을 찾아 밝혀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석가불이 말한 불교 텍스트에 미륵불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미륵은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출현한다고 열반경에 기록되어 있다. 將來之世 有佛名彌勒 出現於

世 爾時 國界名 鷄頭王所治處 장래세계에 미륵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그때의 나라이름은 계두왕이 다스리는 곳이니라. 여기서 계두왕은 신라 탈해왕의 별명이므로 신라 또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에서 출현하여야 한다.

둘째, 미륵은 불기 3000년 이후에 출현하여야 한다. 부처를 상징하는 꽃을 우담바라라고 하는데 우담바라는 석가불 사후 3000년에 핀다(열반경 2권 순타품 佛出世難 如優曇華)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불기 3000년이 되는 1973년 이후에 출현하여야 한다.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法界品)제 39-11, 知三千年後 佛當出現... 知七日後 佛當出現 滿七日已 삼천년이 지나면 부처님께서 마땅히 나타나심을 알겠이니... 7일 후에는 부처님이 나타남을 아는데 7일을 다 채우느니라. 이 경에 의하면 하루를 일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3007년에 미륵불이 출현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셋째, 미륵은 양띠로 출현하여야 한다. 부처를 喻如羴羊(대반열반경 8권 여래성품 4-5)라고 수컷양(羴수컷)에 비유하였다.

넷째, 미륵은 세 분으로 출현한다. 삼존불 중 한 분은 여자여야 하며, 삼존불이 하나로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승리제단의 조희성 님뿐이다. 미륵불을 기다리는 분들은 다 이곳에 와야 업장을 소멸하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탈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25> “하나님의 사정에 동참해야”

하나님의 사정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사정에 동참하는 것이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던 고로 하나님 입장에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서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지만 자신도 모르게 어 느새 내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내 입장에 서는 것은 마귀 입장에 서는

것이므로 내 입장에 서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 입장에 서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 애원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 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지 예수나 석가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통일자율주행 내비게이션 & 내비게이터 영생교 승리제단 & 구세진인 정도령

자율주행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사람은 오감을 사용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정보를 뇌에 전달한다. 자율주행차는 인간보다 더 많은 감각기관(센서)을 동원한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해석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경로를 결정하고, 현재 교통량에 따라 경로를 수정해서 제공한다. 이 단계에는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쓰인다.

각종 센서가 감각기관이라면 차량 제어 단계는 운동기관이다. 뇌에서 내린 판단에 따라 정확하게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로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터가 이 과정을 담당한다. 소프트웨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리와 실제 차량이 움직이는 거리에는 오차가 존재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보정 제어하기 위해 수많은 시험을 반복하면서 일치시킨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사 이래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궁극의 행복을 얻기 위해 한평생을 바쳐 살아온 삶의 출발지와 목적지다. 인류사회는 늘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과 세력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상존해 왔다. 수 천 년 동안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온 메커니즘이 정치, 여론수렴, 의사결정, 정책수행 등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내비게이터가 정치인들이다. 지옥 같은 인간의 삶을 구원할 목적으로 태

어난 정치이건만, 인간의 본성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 오만과 편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악마적 이념과 정책’으로 인해 억압과 차별,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평화통일, 인류공통의 꿈인 불사영생, 태평천하의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인류역사 6천 년 동안 공들여왔던 다사다난한 행적들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정치의 꽃이다. 통일은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에서 최종 승자를 결정짓는 골인지점과도 같다. 단순화, 간편화, 명료화, 정도화를 통해 최종 승자, 즉 옳고 바른 결승의 정답, 승리의 영웅을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새해를 맞아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겠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삶의 질’이란 ‘사람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한다. 인간의 본질인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불편한 삶의 질에 대한 궁극적인 변화, 자기로부터의 혁명이 없는 한 국민의 삶이란 죽음과 질병으로 서서히 침몰하는 세월호의 운명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평화통일의 이상향으로 자율주행을 완성하는 감추어진 내비게이션이 영생교 승리제단이고, 이를 안내하는 숨은 내비게이터가 구세주 정도령이다. 그래서 “정자정야(政者正也)” ‘진실을 말할 의무’라 했다.*

안병천 승사/ 승리제단 기획부장

16개월만에 2지역 1등



김혜선 2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본부제단의 2017년 12월 활동 대상이 9일(화) 2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2017년 12월 성적은 2016년 8월 이후 무려 16개월 만에 2지역이 지역

1등을 차지하며 오랜만에 영광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4지역이 전 지역원의 고른 지원으로 인하여 지역 2등을 차지하였고, 3지역이 막판까지 강세를 이어가며 3등을 차지하였다. 2지역은 최근 절기성금 목표 100% 달성에 참여율 100%까지 달성하며 절치부심한 결과 2017년의 마무리를 멋지게 장식하였다.

개인성적으로는 서보목 승사가 헌금과 인도 점수의 강세에 힘입어 1등을 차지하였고 안병천 승사가 2등, 조건우 승사가 3등을 차지하였다. 구역

성적에서는 개인성적이 그대로 반영되어 서보목 승사의 14구역이 1등, 안병천 승사의 55구역이 2등, 조건우 승사의 49구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윤봉수 회장은 “올해 들어 21일 다시하기 자유율법 실천운동을 시작하였다.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21일 다시하기 자유율법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우선 예배시간에 지각이 없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이다. 구역장회의에도 지각하던 사람이 일찍 나오는 변화가 보인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21일 다시하기 자유율법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를 통하여 좋지 않은 악습들을 고쳐나가지. 이 길은 과거에 잘한 것 소용없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 소용없다. 지금이 순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2지역(지역장: 서보목, 지회장: 김혜선)
- 2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3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구역 1등: 14구역(구역장: 서보목)
- 2등: 55구역(구역장: 안병천)
- 3등: 49구역(구역장: 조건우)
- 개인 1등: 서보목 승사
- 2등: 안병천 승사
- 3등: 조건우 승사*

머리맡에 두면 참 좋은 책



라준경 지음/ 값 10,800원

라준경의 '인생이야기'

휴식 같은 시

현대인은 바쁘다.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를없다. 이제 종술 때와 잠소가 필요하다. 고대의 육신과 영혼이 잠시 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애독하는 시들 중에서 한 부를 뽑아내 자신의 감성을 녹여 일산사에 정목하여 글을 썼다. 저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독자들의 지친 영혼에 한층의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잠들 무렵 고대 옆에 이 한 권의 책을 놓아두라. 그러면 고대는 저자가 말한 쉼으로써 인도되리라.

도서출판 해인



지은이 _ 라준경
경북 대구 출생 (1970)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수료
현) 대구 승리제단 승사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임원